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나눔정신 고취를 위한
김만덕 기념관 전시기획안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양진영

2017년 2월

나눔정신 고취를 위한
김만덕 기념관 전시기획안 연구

지도교수 박 여 성

양 진 영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양진영의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명 하
위 원 함 경 수
위 원 박 여 성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7년 2월

Exhibition-Planning of “Kim, Man-deok” Museum for Inspiring of Sharing-Sprit

Yang, Jin-young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Yo-S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Storytelling).

2017.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Prof. Dr. Maeng-Ha Kim 

Prof. Dr. Kyung-seo Hwang 

Prof. Dr. Yo-song PARK 

Date 2017. 12. 13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v
Abstract	vi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5
1. 나눔교육의 정의	5
2. 기념관의 의미와 스토리텔링의 가치	7
III. 기념관의 선행사례	10
1. 장기려 기념관	10
2. 김만덕 기념관	13
IV. 김만덕의 일생	22
1. 자선활동	22
2. 물에서의 여정과 기록	24
V. 전시공간의 기획	27
1. <김만덕을 생각하다> 전시관	27
2. <나눔정신을 생각하다> 전시관	35
3. 동선과 스토리텔링의 배치	42
VI. 결론	52
참고문헌	54

【국문초록】

나눔정신 고취를 위한 김만덕 기념관 전시기획안 연구

양진영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박여성

본 연구의 목적은 나눔정신 고취를 위한 김만덕 기념관 전시 기획안 구상이다. 종전의 김만덕 기념관은 사라봉에 위치해 있었으나, 사라봉 김만덕 기념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전시물이 적어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입동에 새로이 김만덕 기념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조선시대 평민 여성이었던 김만덕은 유물을 거의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전시 동선에는 단순한 전시물의 배열이 아닌 인물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건입동에 세워진 김만덕 기념관은 기존 사라봉 김만덕 기념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각·청각적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당시의 시대상과 김만덕과 연관된 인물정보 등을 제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전시실 2층에서는 별도의 공간을 할애하여 김만덕이라는 인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나눔정신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많은 취약한 부분들이 보완되었음에도 전시동선에서 다소 아쉬운 점들이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김만덕 기념관의 장점은 취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할 수

있는 기획안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 김만덕은 1739년(영조 15년)에 양인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 양친을 잃고 노기생의 양녀로 들어가게 된다. 그 때문에 양모를 따라 기녀의 길을 걷게 되지만, 기녀일이 아닌 장사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여러 차례 관가에 호소하여 결국 양인으로 풀려난다. 객주를 운영하고 유통업에 종사하며 많은 돈을 벌며 거부가 된 그녀는 제주에 흉년이 닥치자, 자신의 전재산을 풀어 제주도민들을 구휼한다. 선행에 대한 대가로 소원을 빌라는 임금에게 금강산 구경을 청하고 결국 출륙금지령을 떨치고 한양과 금강산 나들이를 하며, 당대의 선비들의 칭송을 듣고 다시 제주로 돌아와 죽을 때까지 나눔을 멈추지 않았다. 김만덕은 신분과 성별의 한계를 극복한 인물이며, 성공한 기업인이고, 또한 훌륭한 나눔정신을 보여준 자선가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김만덕의 이러한 다양한 덕목들 중에서 시대와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나눔정신을 주요 테마로 정해 나눔정신 고취를 위한 전시 기획안을 구상하였다.

3장에서는 새롭게 들어선 건입동 김만덕 기념관과 부산 장기려 기념관 등을 살펴보고 각 기념관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기념관은 모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즉 스토리텔링의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4장에서 김만덕의 일생을 자선활동과 후일담 위주로 살펴보았으며, 5장에서는 4장에서 살펴본 김만덕의 일생을 키워드별로 나누어 스토리텔링을 삽입한 전시동선으로 구상하였다. 덧붙여 전시동선의 내용과 연관된 체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전시를 꾀했다. 나눔정신을 알려주고 되새기는 다양한 전시동선과 체험관을 마련하여 김만덕의 나눔정신이 더욱 부각되도록 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문화자원이나 인물을 다룬 기념관을 기획하고자 할 때, 이처럼 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맞는 이야기를 입혀서 핵심적인 메시지 전달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입힌 전시, 즉 전시 스토리텔링 기법은 관람객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서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관람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관람객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재방문을 높이고, 문화산업적인 면이나 관광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인물 기념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다룬 논문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본 연구가 인물기념관의 긍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Exhibition-Planning of “Kim, Man-deok” Museum for Inspiring of Sharing-Sprit

Yang, Jin-young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Yo-S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lan the exhibition of the Kim Man - deok Memorial Museum to promote the spirit of sharing. The former Kim Man-deok Memorial Hall was located in Sarabong, but Sarabong Kim Man-duk Memorial Hall was difficult to expect its role as a memorial hall due to its narrow space and small exhibition space. For this reason, the Kim Man-duk Memorial Hall is newly established and operated. Kim Man Duk, who was a commoner woman in the Joseon Dynasty, could not leave much artifacts, so storytelling is needed to solve the message that she wants to tell through characters, rather than simple arrangements of exhibits.

The Kim Man-duk Memorial Hall built on the dry slope induces the interest of the visitors by presenting various visual and auditory contents and experience programs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the existing Sarabong Kim Man-deok Memorial Hall, and the person information related to the era of the era and Kim Man-deok. On the

second floor of the exhibition room, a separate space is allocated to guide the spirit of sharing to convey the figure through Kim Man Duk. Although many vulnerable areas have been supplemented by these attempts, some points are left in the exhibition circ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lan that can complement the merits of the existing. The man Kim Man-deok, who was dealt with in this study, was born in 1739 (15th year of King Yeongjo) to a mother who was a mother. Therefore, she walks along the path of the goddess along with the wool, but appeals to the goddess many times with a firm will to do business instead of goddess, and eventually she is released by the goddess. She became a refugee when she started to run a guest house, engaged in distribution business and earned a lot of money. When she got a bad year in Jeju, she helped Jeju residents to solve their own problems. In return for his good works, Villa wishes him to visit the Mt. Geumgang and eventually abandon the ban, to go out to Hanyang and the Mt. Kungang, to listen to the praise of the precious people of the day, and to return to Jeju again, Kim Man-deok is a person who overcomes the limits of identity and gender, is a successful businessman, and is also a charity who showed a great sharing spirit. In this study, we designed an exhibition plan for sharing the spirit of sharing, which is the main theme of sharing, which can gain sympathy for all, regardless of age and gender among the various virtues of Kim Man - duk.

In Chapter 3, we looked at the Kim Man - deok Memorial Hall and the Busan Jungmu Memorial Hall. Both memorials have many advantages, but judged that there is a lack of a storytelling method of conveying a message through a story. In Chapter 4, we looked at the life of Kim Man - deok in charity activities and after - work. In Chapter 5, we conceptualized Kim Dong - In addition, we presented an

experience program related to the contents of the exhibition circuit and made an exhibition to interact with the audience. We have provided a variety of exhibitions and experiences to inform and reflect on the spirit of sharing and to make Kim Man-deok share his spirit. In the future, when planning a memorial hall dealing with cultural resources or characters, it is necessary to induce key messages to be conveyed in such a way that the stories are in line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memorial hall. The story-telling exhibition, that is, the exhibition storytelling technique, is more familiar to viewers and can induce viewers to more aggressive viewing attitud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positive evaluation of viewers and the re-visit rate will be improved, and positive effects will be expected in terms of cultural industry and tourism. I hope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positive development of the people memorial hall.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김만덕 기념관의 장점은 살리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스토리텔링 요소를 적용한 전시 기획안 구상을 통하여 보완하는 데 있다. 즉,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보완을 통해 보다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시 기획안을 구상해 볼 것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는 제주에는 현재 수많은 관광시설과 테마파크들이 설립되었으며, 그 흐름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 중 인물기념관은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 제주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기념관으로는 서귀포시 대정읍으로 유배왔던 추사 김정희를 기념하는 추사관, 피란 중 잠시 제주도 서귀포에 머물렀던 화가 이중섭을 기념하는 서귀포 이중섭미술관, 제주에 표류했던 하멜의 상선을 기념하는 하멜기념관, 제주 해녀의 강인함을 이야기하는 구좌읍 하도리 제주 해녀박물관, 제주의 중산간을 사랑했던 사진작가 김영갑의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서귀포에서 활동하는 이왈중 화백의 작품을 전시한 왈중미술관, 제주를 대표하는 나눔의 대명사이자 거상 김만덕을 기념하는 김만덕 기념관, 최근에 개관한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등을 들 수 있다.

<표 1> 제주 인물기념관 현황

기념관	개관연도
서귀포 이중섭미술관	2002
김영갑갤러리 두모약	2002
제주 해녀박물관	2006
하멜 기념관	2007
소암 기념관	2009
추사관	2010
왈중미술관	2013
김만덕 기념관(신설)	2015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2016

특히 제주 출신 인물을 다루는 기념관으로 한정하면 인물기념관의 수는 더욱 적다. 이러한 현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주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김만덕 기념관에 관련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만덕 기념관의 보다 발전적인 운영과 홍보를 위한 소정의 기획안을 구상해 볼 것이다. 최근에 지어진 김만덕 기념관에 앞서, 사라봉 모충사에는 <의녀반수 김만덕 의인묘비>, <김만덕 할망 기념탑>과 함께 <김만덕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라봉에 있는 기념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전시품도 부족하여 기념관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시 위주의 기념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시물의 수가 매우 적고 그나마 영정이나 묘소 등을 제외하면 김만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콘텐츠가 대부분이다.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시 건입동 1164번지 일대 금산생태공원 주위에 새로운 김만덕 기념관을 건립하였다. 전시 위주의 기념관으로 설립한다면 종전 사라봉 김만덕 기념관의 열악한 환경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에 김만덕 기념관은 유물이 적다는 난점을 보완, 극복하기 위해 나눔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질 나눔 문화관, 나눔정신의 실천방법을 알려줄 나눔 실천관 등의 전시 구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유물이나 기록이 많지 않은 김만덕 기념관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동선을 창조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전시

스토리텔링'에 주목했다. '전시 스토리텔링'은 기존의 역사적 전시물의 나열, 설명 위주의 전시를 넘어 관람객에게 정보와 지식, 감동과 감성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를 통해 관람객의 주체적인 관람을 유도하고, 오브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흥미와 감동, 즐거움 등을 느끼는 체험자 지향형 스토리텔링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의 핵심 인물인 김만덕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한 인물이자 여성의 몸으로 성공한 기업인이다. 또한 그녀는 힘겹게 모은 전 재산을 빈민 구제를 위해 바친 인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한 기업인으로서의 거상 이미지와 거상의 이미지에서 파생되는 여성 위인으로서의 김만덕의 인물상 범주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자선가로서의 김만덕이 시대와 여성이라는 제한적 상황을 이겨내고 이루어 낸 성과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던 김만덕의 나눔정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인성교육이 다시 조명받는 이 때에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김만덕의 나눔정신의 교육, 고취라는 테마를 통해, 김만덕 기념관은 단순한 인물기념관이 아닌 현장학습의 장, 나눔정신의 모델을 통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시 스토리텔링 기법을 바탕으로, 나눔정신 고취를 테마로 삼아 김만덕 기념관의 전시 기획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람객의 주 연령대를 청소년과 어린이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나눔정신을 주제로 삼아 교육적, 교훈적 의미를 담은 인물 기념관의 발전방안을 구상하였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나눔과 나눔교육, 기념관의 정의와 기능, 특성 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물기념관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김만덕 기념관과 장기려 기념관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김만덕 기념관은 전시동선 구성을 위하여 많은 콘텐츠들을 준비하였지만, 아쉽게도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장기려 기념관은 또 다른 나눔의 대명사인 장기려 박사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을 전시했지만, 단순히 전시물 위주의 기념관이라는 느낌이 강하기에 여러 전시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김만덕 기념관에 다양한 장점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모색하였다. 4장에서는 김만덕이라는 위인의 일생을 자선활동과 후일담으로 나누어 조명해볼 것이며, 5장에서는 김만덕 기념관의 전시 동선

과 전시 공간 기획을 키워드별로 구성하여 ‘소녀 김만덕’, ‘기업인 김만덕’ 등 키워드별로 전시 동선을 짜고 각 전시 동선이 끝날 때마다 전시내용과 관련이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이다. 또한 키워드별 전시 동선이 끝난 후에는 나눔정신에 대한 동선을 기획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가로와 세로 동선표를 통해 기념관의 전시동선을 그려내고, 투시도를 삽입하여 전시 동선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나눔교육의 정의

‘나눔’은 ‘나누다’의 명사형으로 ‘가르다’, ‘분배하다’, ‘함께하다’, ‘주고받다’의 뜻을 가진다. 이때 ‘가르다’, ‘분배하다’의 의미는 나눔-분할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하다’, ‘주고받다’는 나눔-결합의 의미를 가진다.¹⁾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나눔-결합의 의미에서 ‘나눔’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나눔-결합의 의미에서 본 나눔은 크게 1)단순한 주는 행위(giving), 2)동정적이고 감정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자선행위(charity), 3)깊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계획적인 박애활동(philanthropy)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박애활동의 개념에 기반을 한 나눔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인류애, 공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 재능, 재산을 대가없이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²⁾ 본 연구에서는 박애활동의 개념에 기반을 한 나눔에 대해 정의하였다.

나눔이라는 개념이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와 기부이다. 이러한 나눔이 일회성이거나 특별한 경험이 아닌 일상적인 체험이 될 때 나눔이라는 개념이 진정 의미를 갖는다. 나눔은 나누는 활동 그 자체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당연히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도덕의식을 갖는 것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눔을 타인 혹은 사회를 향한 선의와 책임감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혹은 시간을 투자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눔교육이란 나눔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빈곤, 장애 등 사회적 약자와 나를 수평적 관계로 인식하고, 나눔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 방법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즐거운 책임임을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열린

1) 강현주 (2009), 「시민성 함양을 위한 고등학교 청소년의 나눔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7쪽

2) 이경은 (2006),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12쪽

교육이다.³⁾ 나눔교육은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알려주고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고취시킨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나눔교육을 통하여 이타심과 측은지심을 기르고 공동체의식을 학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눔교육은 인성교육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덕적 가치로서의 나눔의 의미에 주목해보면 나눔교육은 사랑, 공동체 의식, 생명존중 등의 도덕적 덕목을 가르치는 도덕교육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므로 나 이외의 타인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서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이는 인류에 대한 사랑의 개념으로 공동체 의식과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서 생명 존중을 의미한다.⁴⁾ 또한 나눔교육은 일종의 시민교육으로도 볼 수 있는데, 나눔교육의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의 덕목인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가치관 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⁵⁾ 이러한 정의들을 바탕으로 나눔교육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전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해와 나눔을 실천하며, 나눔이 자신의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학습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나눔교육의 목표는 자기 이해와 자존감을 높이도록 돕는 것, 타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키우는 것, 공동체와 공익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 나눔의 실천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알려주는 것, 나눔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자리 잡도록 돕는 것이다.⁶⁾ 본 연구에서는 나눔교육을 나눔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인식하고 실천하여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김만덕 기념관 기획의 단서로 삼고자 한다.

3) 경인일보, 「이웃사랑 실천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성호 기자, 2010년 3월 9일, <http://www.kyeongin.com>

4) 강혜경 (2013),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나눔·배려 교육 지도 방법의 구안」,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12쪽

5) 박신영 (2014), 「초등학생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증진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12쪽

6) 강혜경 (2013), 위의 논문, 9쪽

2. 기념관의 의미와 스토리텔링의 가치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들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기념관에는 여러 자료나 유품들을 진열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전적 의미로 볼 수 있다. 기념관의 역할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역사적 사건 및 인물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 추모를 통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의미 있는 과거 세대의 기억을 전달하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⁷⁾

기념관은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박물관과 유사해 보이나, 전시를 통해 어떤 특정 사건이나 인물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숭고한 뜻, 정신적 무형의 가치를 기리고 기념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박물관 전시와 차별된 요소를 가진다.⁸⁾ 이와 같은 연유로 기념관은 박물관과 다른 존재의 목적을 가지며 기념관에서 기리는 인물의 과거 시간과 기념관을 찾아가 그들의 숭고한 뜻을 만나게 되는 현재 시간을 조우하게 하는 공간의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기념관은 박물관과 달리, 유물을 전시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기념관의 설립목적과 주제에 맞는 과거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당 기념관이 다루는 사건 혹은 인물을 통해 후세에 남기고픈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물기념관을 기억할 만한 인물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그의 선행과 업적에 대해 기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기념관의 정의에 따르면, 기념관에는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와 이야기가 필요하다. 관람객에게 기념하고자 하는 인물 혹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기념관 설립의 목적이다.

기념관은 박물관처럼 실물 자료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물 자료 전시 뿐 아니라, 그 자료와 연관된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시를 만들어 나간다.⁹⁾ 프랑스의 드골 기념관은

7) 박희명 (2011), 「기념관의 역사와 교육기능 연구 : 백범김구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물관교육학과, 10쪽

8) 강민우 (2014), 「이중섭 기념관 : 이중섭기념관 설계계획안」,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4쪽

9) 이준성 (2013), 「세종대왕 기념관의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7쪽

이러한 기념관의 특성이 극대화된 예이다. 드골 기념관은 드골의 유품을 배제한 채 오직 이야기만으로 기획되었다. 조선시대 평민 여성이었던 김만덕도 유물을 거의 남기지 못했다. 이처럼 유물 등의 실물 자료가 부족한 김만덕 기념관의 전시동선 기획에 있어서도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이 필수적이다.

스토리텔링의 사전적 의미는 이야기(story)를 말하다(telling)라는 뜻이다. 개념적으로 보면 스토리텔링이란, 사건과 등장인물, 배경이라는 구성요소를 갖추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되어 가는 양식이다. 오늘날의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매체의 특성에 맞게 표현하는 동시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술적 측면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¹⁰⁾ 즉,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의 구현 그 자체, 그리고 이야기를 구현하는 행위나 수단 등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다른 서사적 장르와는 차별화되는 상호작용성, 비선형성, 복합성의 특성을 가진다. 상호작용성이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 화자 뿐 아니라 청자 또한 개입하게 되어 일방적인 이야기의 전달이 아닌 화자와 청자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¹¹⁾ 또한 정해진 순서에 의해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의지 혹은 청자의 개입에 의해 내용이 역으로 진행되거나 특정 내용을 건너뛰는 게 가능한 비선형성, 문자라는 단일 미디어에서 벗어나 화자의 음성과 음성의 크기, 표정과 제스처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개입될 수 있는 복합성 등의 특징이 있다.¹²⁾ 이와 같은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이야기 삽입이 필수적인 기념관 전시동선 구상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상호작용을 통해 관람객의 일방적인 유물 관람이 아닌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관람이 가능해지며, 관람객의 흥미유도를 위하여 스토리의 순서를 바꾸거나 지루한 구간을 생략할 수도 있고 다양한 매체와 수단을 이용하여 전시를 좀 더 풍성하게 꾸밀 수도 있다. 이처럼 전시동선에 스토리텔링을 삽입하여 핵심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상대의 흥미를 유발하는 기법을 전시 스토리텔링 기법이라 한다. 전시 스토리텔링 기법은 관람객의 친근감과 흥미, 감정이입을 유도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람

10) 진수정 (2011),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대학기록관의 전시 개발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23-24쪽

11) 김은성 (2014),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나눔교육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9-10쪽

12) 안예진 (2009), 「테마박물관 소장품전시의 스토리텔링 적용에 관한 연구 : 아프리카박물관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32쪽

자세와 재방문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기념관들의 전시동선 구상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예인 수도권산 달동네박물관¹³⁾에서는 실제 존재했던 달동네 상점들을 재현해놓았는데, 실제 거주하였던 주민의 모습과 사연들을 그대로 모형으로 제작하여 그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보여준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심청전’ 이야기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전시동선을 기획하였고, ‘심청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체험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¹⁴⁾

전시 스토리텔링은 기념관 해설에도 유용하다. 피츠윌리엄 박물관의 전시 해설자인 Ben Haggarty의 일화를 보면, 그는 박물관의 중국 자기에 대해 사전 설명 없이 “무엇이 보입니까?”라 물었을 때, 관람객 어린이들로부터 “접시와 향아리들”이라는 답변 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중국의 신선들에 대해 알려주고 난 후 다시 질문하자, “날아가는 노인과 불그스름한 얼굴의 사람이 보인다”라는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이 사례를 통해 전시물의 해석에 있어 이야기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¹⁵⁾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전시 스토리텔링이 동일한 전시물에 대한 해석을 달라지게 하며, 관람객의 흥미와 종전과는 다른 방식을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물 기념관 동선을 구상함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13) 수도권산 달동네박물관, http://www.icdonggu.go.kr/open_content/museum/index.jsp

14) 김나희 (2007), 「어린이를 위한 스토리텔링 전시기법에 관한 연구 : 생활사 주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56쪽

15) 김나희 (2007), 위의 논문, 61쪽

Ⅲ. 기념관의 현황

1. 장기려 기념관

김만덕 기념관 전시기획 구상을 위한 선행사례 조사를 위해 김만덕과 마찬가지로 나눔의 삶을 살다 간 인물을 기리는 기념관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부산 동구에 자리잡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장기려 박사¹⁶⁾의 기념관을 분석대상으로 정할 수 있었다. 김만덕이 자신의 부를 통해 나눔을 베풀었다면,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의술을 통해 한평생 나눔을 베푼 의인이다. 그는 의사를 한 번도 못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윗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으며¹⁷⁾, 행려병자들을 치료하고 병원을 무료로 운영하는 등의 나눔정신을 실천했다. 2013년에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더 나눔 센터’가 신설되었는데, 이 센터에는 도서관, 북 카페, 일자리 나눔 방 등이 들어서서 주민들을 위한 나눔 문화 공간이 되었다. 이 센터의 2층이 바로 장기려 박사의 행적을 다룬 장기려 기념관이다. 일단 기념관에는 장기려 박사의 행적을 소개한 각종 안내패널이 진열되어 있다. 전시동선은 장기려 박사의 행적을 따라 다양한 일화들과 옥탑방에서의 삶,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했던 삶¹⁸⁾ 등, 그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생전에 장기려 박사가 주장한 나눔정신, 봉사정신에 대해 설명한 안내판들과 함께 그의 의사면허증, 논문, 친필노트, 막사이사이상 메달, 가운과 진찰기 등이 진열되어 있다.

16) 조선일보, "거봉의료복합타운 조성... 거제지역 건강 과수꾼 역할 최선", 2016년 11월 14일, 황여정 기자

17) 국민일보, "부산에 장기려박사 기리는 '장기려路' 생겨", 2015년 3월 19일, 윤봉학 기자

18) 이상희(2005), 『가난한 이웃을 어루만진 의사 장기려』, 웅진씽크빅, 34쪽



〈그림 1〉 장기려 박사의 행적들로 이뤄진 전시동선



〈그림 2〉 장기려 박사의 의사가운과 진찰기

전시관 중앙에는 장기려 박사를 다룬 총 3부의 영상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려 인물 동화를 볼 수 있는 영상감상실이 자리 잡고 있다. 관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콘텐츠로는 다른 편에는 장기려 박사를 다룬 도서와 교과서들이 진열된 코너가 있으며, 장기려 박사를 본받아 의사체험을 해보고 장기려 박사의 실물 크기의 사진과 함께 촬영할 수 있는 포토 존도 준비되어 있다.¹⁹⁾

19) 송민재(2016), 피란수도 부산의 봄을 가슴에 담다, <http://reporter.korea.kr/index.jsp>



〈그림 3〉 장기려 박사를 다룬
신문기사 전시 : 무소유의 삶,
인술을 베푼 삶에 대한 조명

장기려 박사가 만든 청십자의료보험조합²⁰과 그가 베푼 인술을 다룬 신문기사들을 부조 형식으로 만들어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든 기법은 효과적이다. 기념관은 전체적으로 장기려 박사의 나눔과 봉사의 삶에 대해, 그의 행적을 중심으로 구성한 전시동선을 취하고 있다. 장기려 박사가 베푼 인술에 관한 일화들, 그의 월남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비극 등, 박사의 개인사와 일화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소개하여 장기려 박사라는 인물 개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안내패널과 전시물 위주의 전시동선으로 안내한다. 다만 의사체험과 포토 존을 제외하고선 관람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다. 비교적 최근의 인물인 만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과 일화들이 남아있어 전시동선을 채우고 있지만, 기념관의 규모 자체가 협소한 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눈에 띄지 않는 점은 아쉽다. 장기려 기념관이 자리한 더 나눔 센터의 건물 자체는 크지만, 건물의 대부분이 도서관, 북 카페, 나눔 방, 보건소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고 기념관이 배정받은 공간 자체는 작다. 즉, 기념관의 용도로만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와 나눔을 위해 지어진 건물의 한 부분을 기념관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²¹. 장기려 박사를 기리는 전시를 해놓은 공간들은 아니지만, 박사가 주장하는 나눔정신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으니 의미 있는

20) 김은식(2006), 『장기려 우리 곁에 살다 간 성자』, 봄 나무, 158쪽

21) 국제신문, "초량동 장기려 박사 기념관 문 열어", 2013년 3월 29일, 이노성, 최승희 기자

시도인 셈이다.

2. 김만덕 사라봉, 건입동 기념관

기존 김만덕 기념관의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기 위해 사례분석을 해보았다. 종전의 사라봉 기념관에는 조선시대에 쓰인 유물 몇 가지와 김만덕의 영정, 김만덕의 일생을 그린 그림과 안내판이 전부였다. 김만덕은 평민 출신이어서 남긴 유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래의 전시물 위주의 기념관을 넘어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전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라봉 기념관에서는 그런 시도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시물이나 전시동선에서 이야기의 기승전결이나 유기적인 연결이 눈에 띄지 않았었다. <그림 5>와 같이 배열된 약간의 전시물들 또한 단순히 나열만 되어있을 뿐, 설명이 따로 없었다.



<그림 4> 사라봉 김만덕 기념관 입구



〈그림 5〉 사라봉 기념관의 전시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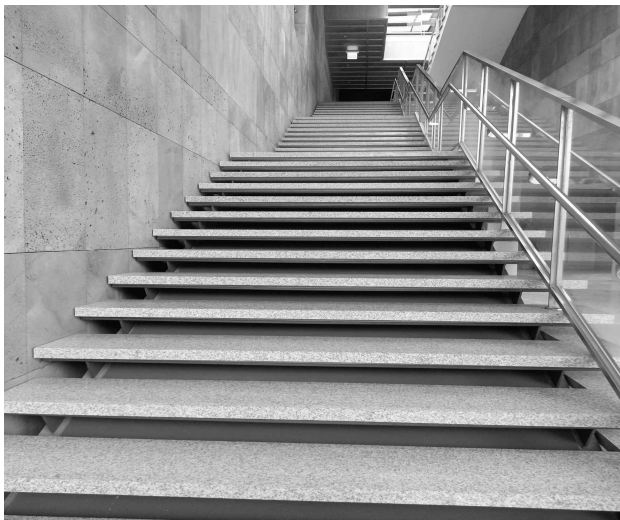


〈그림 6〉 사라봉 김만덕 기념관 전시물

한편, 건입동에 신축된 김만덕 기념관은 사라봉 기념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공간이다. 소박한 돌집 모양의 사라봉 기념관과 달리 이곳은 현대적인 느낌의 석조 건물이다. 3층짜리 건물의 외관만 보자면 차갑고 위압적이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나눔정신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와 괴리되는 인상을 준다.



〈그림 7〉 건입동 김만덕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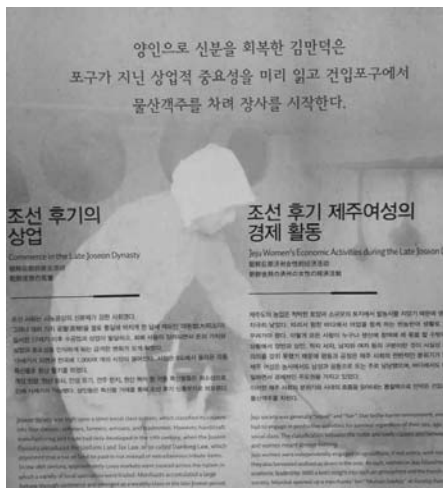


〈그림 8〉 김만덕 기념관 내부 모습

〈그림 8〉을 통해 보여지는 기념관 내부 역시 따뜻한 색상이나 인테리어가 활용되지 않았다. 회색 석조 위주인 실내 디자인에서는 나눔정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스한 이미지를 연상하기 어렵다. 전시 공간 기획과는 별개로 더 따스한 색상과 실내 공간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면 나눔정신이라는 기념관의 모티브와 더욱 잘 어울렸을 것이다.

건입동 기념관은 유물이 부족한 사라봉 기념관의 단점을 메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시도가 엿보인다. 당시의 시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정조임금과 박제가의

인물상이나 김만덕과 관련된 기록, 당시의 신분제도, 김만덕이 취급했던 물품이나 객주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졌다. 또한 조선 후기의 상업 활동과 당시 여성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안내패널도 볼 수 있다. 이때 ‘정조 시대 심각한 흉년’은 한 줄로 처리된 반면, 흉년의 심각한 상황은 당시의 여러 기록을 통해 자세히 소개된다. 당시의 인물 모습을 한 인형이나 김만덕의 여행 경로를 나타낸 대형 지도 등은 관람객의 흥미를 높여준다. 2층에서는 김만덕에 대한 전시와 정보 제공을 넘어서 다양한 나눔과 기부 방법을 알려준다. 여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관으로 관람객들의 흥미와 적극성을 이끌어내는 등, 건입동 기념관은 전시물이 부족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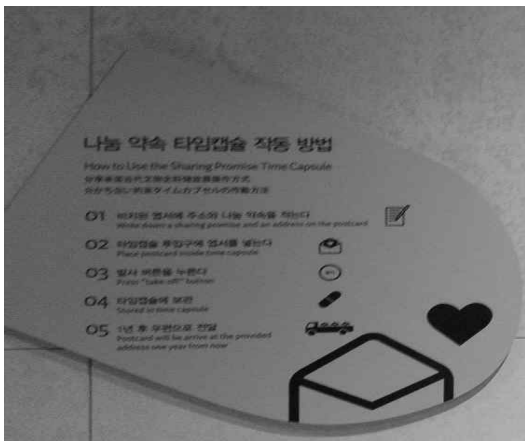
<그림 9> 조선 후기 제주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안내 패널

<그림 9>는 김만덕의 객주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조선 후기 제주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해 다루는 안내패널이다. 관객들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패널 내부에서 조명이 나오도록 만들었다.



<그림 10> 쌀을 나눠주는 김만덕의 모습을 재현한 석조인형

또한 당시의 객주 모습, 흥년 당시 쌀을 나눠주던 김만덕의 모습 등을 재현하여 관객들의 흥미 유도를 꾀했다. 관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다수 준비되어 있다. <그림 11>은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나눔 약속 타임캡슐의 작동 방법을 설명한 안내패널이다.



<그림 11> 나눔 약속 타임캡슐 체험 프로그램 안내 패널

<그림 12>와 같이 다양한 기부 단체의 이름이 새겨진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기부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음성콘텐츠들 또한 준비되어 있다.



<그림 12> 기부 방법을 알려주는 음성콘텐츠

비교 관찰을 바탕으로, 두 전시관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신축된 건입동 김만덕 기념관은 사라봉 기념관과 차별화되는 여러 장점이 눈에 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시 동선에서 관람객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김만덕의 일생을 전시한 3층의 상설전시관은 전시동선이 불명확하다. 전시동선의 시작은 만덕전 등의 기록 소개, 그리고 정조와 박제가 등의 인물 소개를 하는 부분인데, 입구가 양쪽으로 뚫려 있어 동선의 시작이 어디인지 헷갈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만덕의 일생이나 업적에 대한 소개가 없이, 김만덕의 선행을 찬양하는 기록들과 김만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인물들의 소개가 먼저 나온다. 김만덕의 생애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등장해야 전시동선의 배열이 좀 더 유기적으로 꾸며질 수 있을 것이다. 김만덕의 생애에 대한 설명은 김만덕이 장사를 시작한 이야기부터 등장하는데, 어린 시절과 기녀 시절의 김만덕의 생애는 안내판의 설명만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된다. 김만덕이 장사를 시작한 계기나 기녀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던 고단한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부족하여, 김만덕이 어려운 처지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성공하기까지 한 성공 기를 빛내 줄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좀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김만덕과 관련된 영상관이 당시의 흥년에 대한 전시물들 중간에 삽입되어 전시동선이 중간에 끊긴다는 인상을 준다. 김만덕 기념사업과 문화예술 콘텐츠

츠에 대한 소개도 중간에 등장하기보다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편이 더욱 통일성 있게 보였을 것이다. 기념사업과 만덕상의 소개 다음으로는 김만덕의 금강산 여행과 정조임금을 만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당시의 흥년과 김만덕의 빛난 선행 이후로 금강산 여행과 서울 여행에 대한 소개를 넣었으면 전시동선이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시동선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김만덕 기념관에서는 사라봉 기념관의 미흡함을 극복하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과 시각·청각적 콘텐츠들, 그 시대의 모습을 재현해 낸 모형 등을 통해 관람객들의 흥미 유도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김만덕이라는 인물을 알리는 것을 넘어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알리기 위한 시도로 나눔정신과 관련된 여러 전시들을 준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건입동 김만덕 기념관의 장점을 적용하여 흥미 유도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과 나눔정신 고취를 위한 전시동선을 기획해 보고자 한다.

<표 2> 기념관 장단점 분석표

	장점	단점
장기려 기념관	많은 전시물, 그리고 나눔 센터와 함께 있어 관람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쉬움, 다양한 안내패널로 관람객의 주목을 유도함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가 거의 없음, 전시동선이 단순히 인물의 행적 위주
사라봉 김만덕 기념관	김만덕의 일생을 그림을 통해 순차적으로 설명함	협소한 전시 공간, 전시물이 극히 적음, 김만덕의 일생과 선행에 대한 표면적인 설명이 주를 이룸
건입동 김만덕 기념관	영상 콘텐츠, 인형, 재현 공간 등으로 흥미 유발, 위인 소개에서 그치지 않고 나눔정신을 강조하는 코너를 만들, 체험 프로그램 제공, 인물의 시대상, 사회상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딱딱하고 차가운 인상을 주는 외관, 전시동선이 다소 산만하게 보일 수 있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스토리텔링 요소는 많이 보이지 않음

사라봉 기념관과 신축된 건입동 기념관을 비교해본 결과, 건입동 기념관은 전반적으로 사라봉 기념관의 단점을 메우는 여러 시도를 선보였다. 김만덕의 일생을 소개하는데 그친 사라봉 기념관과 달리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주요 모티브로 삼아 나눔정신을 알려주는 공간을 새로 설치했다. 이것은 유물이 거의 없어 전시물이 많지 않은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자 김만덕이라는 인물의 정신세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이다.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인물 기념관을 다채롭게 꾸미기 위해서, 누르면 소리가 나는 음성콘텐츠나 아기자기하게 꾸며

진 체험 프로그램,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나눔 명상관과 실천관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부분으로는 전시동선의 배열에서 유기적이지 못한 점을 들 수 있겠다. 인물의 생애에 대한 충분한 소개 후, 관련 기록과 김만덕과 연관된 당시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동선을 채택하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중간에 삽입되는 영상관과 김만덕 문화관련 콘텐츠 또한 가장 마지막 동선에 위치하는 것이 좀 더 통일성 있게 보인다. 관람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많은 시도가 드러났지만,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들에서 스토리텔링을 위한 시도가 많이 엿보이지 않는다. 좀 더 통일성 있고 유기적인 전시동선과 스토리텔링 요소 삽입을 위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건입동 기념관의 장점은 살리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보완한 새로운 기념관 구상안에 대해 기획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IV. 김만덕의 일생

김만덕이라는 인물의 일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만덕은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기녀가 되었으나 기녀생활로 번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크게 성공해 거부가 되었다. 제주에서 대홍년이 발생했을 때, 거금을 내놓아 제주도민들을 살렸고 그 후로도 줄곧 나눔의 손길을 베풀었다.

1. 자선활동

1739년(영조 15년) 양인인 아버지 김응열과 어머니 고 씨의 고명딸로 태어난 김만덕은 불행하게도 12세의 나이에 돌림병으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다. 잠시 외삼촌의 집에 몸을 의탁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늙은 기녀의 수양딸로 들어가게 되었다²²⁾. 기녀의 딸은 당연히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기녀가 되었으므로 자연히 기적(妓籍)에 이름이 올랐고 가무를 익혀 잠시 관기(官妓)생활을 했다. 그녀가 스무 살이 넘었을 때, 본래 양인이었던 신분을 내세워 기적에서 이름을 지워 줄 것을 관가에 열렬히 호소했다. 관기는 관가의 재산이었으므로 처음에는 그러한 청이 거절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만덕은 제주목사 신광익을 직접 찾아가 다시 호소하였다. 결국 제주목사가 그녀를 가없이 여겨 기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신분을 양인으로 복원시켜주자, 그녀는 기녀생활을 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객주를 차리고 사업을 시작했다.²³⁾ 기녀생활을 접고 장사를 하고 싶어 했던 김만덕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김만덕은 기녀생활을 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객주를 운영하며 제주도의 물품과 육지의 물품을 교역하는 유통업에 종사했다고 한다. 제주의 특산물인 미역, 전복, 굴, 말총, 양태(갯의 재료), 우황 등을 서울 등지에 팔았고, 기녀 시절의 경험을

22) 민병덕(2012), 『정직하게 벌고 아낌없이 나누었던 진정한 부자 거상 김만덕』, 살림, 8-9쪽

23) 김인숙(2006), 『제주의 빛 김만덕』, 푸른숲, 59쪽

되살려서 부녀자들이 사용하는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제주 도내에 유통시키는 상업에도 종사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²⁴⁾

1790년(정조 14년)부터 1794년(정조 18년)까지 제주에서 대흉년이 발생하였다. 정조가 구휼미를 보냈으나, 이마저도 태풍으로 인해 구휼곡을 싣고 제주로 가던 배가 침몰하여 실패했다.²⁵⁾ 이러한 불상사들이 겹쳐, 제주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게 되자 김만덕은 전 재산을 구호사업에 회사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자신의 전 재산 1천금으로 본토에서 구휼미 500석을 사들였고, 이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50석을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주었고, 나머지 450석을 제주 관아에 기부하여 기근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써 달라 청하였다. 이로 인해 김만덕은 제주도민들의 칭송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이 일이 조정에 보고되지 못하였다. 흉년이 지난 뒤 새로이 부임해온 제주목사 유사모는 김만덕의 선행을 전해 듣고 조정에 보고했다.²⁶⁾ 정조는 김만덕의 선행을 기특히 여겨, 그녀가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노라 하였다. 그녀는 “다른 소원은 없사오나 오직 한 가지, 한양에 가서 임금님 계시는 궁궐을 우러러 보는 것과 천하 명산인 금강산 1만 2천봉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제주에는 조선 중기 제주도민들이 제주 섬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 정책인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주 도민들은 육지의 땅을 밟을 수 없었다.²⁷⁾ 이러한 상황에서 김만덕은 경복궁과 금강산 구경을 원한 것이다. 정조는 김만덕에 한해 출륙금지령을 풀어주고, 그녀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1796년, 김만덕이 임금이 계신 궁궐에 도착하자, 정조는 명예직인 의녀반수(醫女班首)²⁸⁾라는 벼슬을 내렸다.²⁹⁾ 왕을 알현하려면 무엇이든 벼슬을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양인 여성인 김만덕에게 내리기에는 의녀반수라는 명예직이 적절했을 것이다. 만덕은 기녀에 양인출신 여성이 자산가가 되어 제주를 구제했다는 점에서, 이미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특히 서울 장안에서 김만덕의 유명세가 대단했고, 사대부들을 비롯한 당대의 석학들이 그녀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

24) (사)김만덕기념사업회(2013), 『의녀반수 김만덕 생애와 현대적 조명』, 3쪽

25) (사)김만덕기념사업회(2013), 위의 책, 6쪽

26) 김영미(2010), 『김만덕』 1권, 산수야, 437쪽

27)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www.grandculture.net

28) 醫女班首: 의녀 중에 으뜸

29) 이수광(2010), 『시대의 빛이 된 여인 김만덕』, 워크비전, 312쪽

고 한다. 또한 김만덕은 당시 왕비였던 효의황후로부터 “너는 일개 여자의 몸으로 의기(意氣)를 발휘하여, 굶주린 백성 천 여 명을 살렸으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다.” 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³⁰⁾

2. 물에서의 여정과 기록

김만덕은 궁궐 입성 이후로 서울에서 반년 정도 머물다가 금강산에 들어가 경치를 구경했다고 한다.³¹⁾ 금강산 구경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김만덕은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고 박제가, 이가환, 정약용 같은 당대의 문인들이 그녀를 위해 시를 써주기도 했다. 김만덕이 제주로 돌아가기 직전, 채제공에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이승에서 다시는 대감의 얼굴을 뵈지 못하겠다.” 라며 울었다고 한다.³²⁾ 이에 채제공 또한 “너는 사내들도 가보지 못한 한라산과 금강산, 두 산을 모두 구경했다.” 라는 말로 김만덕을 위로하며 직접 지은 「만덕전」을 주었다. 이 「만덕전」은 채제공의 문집인 『변암집』에 실려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게 했다.³³⁾ 시련을 극복하고 기업인으로 성공한 성공담, 장사로 모은 전 재산을 환원하는 미담, 그 포상으로 임금에게 소박한 청원을 하고 그 꿈을 이룬 김만덕의 일생을 정리한 만덕전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의 관찬서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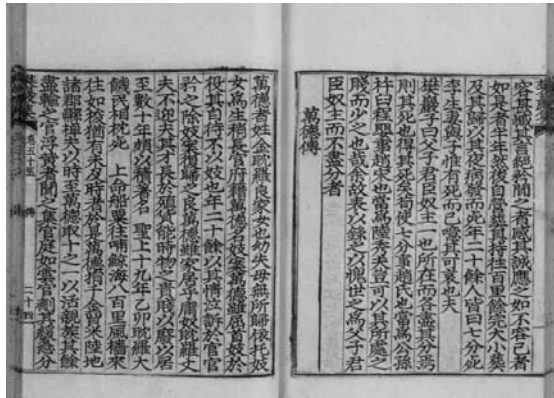
30) 정창권(2006),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219쪽

31) 이이화(2008), 『한국사의 아웃사이더』, 김영사, 83쪽

32) 김경애(2009), 시대와 불화하지 않으면서 시대를 뛰어넘은 여성 기업인 김만덕, <http://navercast.naver.com/>

33) 신병주(2011), 『조선평전』, 글 향아리, 427쪽

34) (사)김만덕기념사업회(2013), 『김만덕 자료총서 나눔과 봉사의 실천가 김만덕』, 103쪽



<그림 13> 「만덕전」: 체제공이 김만덕의 일생을 정리한 책

김만덕이 전 재산을 털어 쌀 500석을 구휼미로 내놓아, 제주도민들을 기아에서 구제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김만덕의 그 후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김만덕은 서울구경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계속 객주를 운영하며 여생 동안 자선사업에 주력하였다. 그러한 선행으로 인해 제주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을 받았고, 제주인들 사이에서 김만덕은 ‘만덕 할머니’로 통했다. 이러한 그녀의 선행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자, 조정에서는 부친 응열공에게는 가의대부(嘉義大夫)를, 구휼 사업을 도운 오빠 만석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추증(追贈)³⁵⁾했다.³⁶⁾

김만덕은 순조 12년(1812) 10월 22일, 일흔네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친자가 없는 대신 양자들을 들였다. 그리고 양자들에게는 먹고 살만큼의 재산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모두 빈민들을 위해 쓰라고 기부했다고 한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눔을 행했던 여장부이자 자선가라 할 수 있겠다. 김만덕은 임종 직전, “내가 죽거든 제주 성안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묻어 달라.” 고 유언을 남겼다. 그녀의 유언대로 후손들은 제주 성안이 한 눈에 보이는 ‘ㄱ우니ㄱ루’³⁷⁾ 라는 언덕에 안장했다.³⁸⁾

그녀가 죽은 뒤 28년 후, 헌종 6년(1840)에 제주로 유배된 추사 김정희는 김만

35) 追贈, 죽은 사람의 관직을 올려주는 것

36) 이경화(2005), 『구원의 여인 김만덕』, 깊은 강, 154쪽

37) 숨이 턱에 찬 모양을 가리키는 ‘가웃가웃하다’ 라는 제주 사투리에서 나온 말

38) 김인숙(2006), 위의 책, 147쪽

덕의 선행을 듣고 감동하여, 김만덕의 양손(養孫)이 되는 김종주에게 편액³⁹⁾을 써주기도 하였다. 또한 그 옆에 ‘김종주의 할머니가 제주의 큰 흉년을 구휼하였다. 임금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금강산을 구경하였으며, 벼슬아치들이 모두 전기와 시가로 이를 노래하였다. 이는 고금에 드문 일이므로 이 편액을 써 보내어 그 집안을 표하는 바이다⁴⁰⁾’ 라고 기록했다.



<그림 14> 「은광연세(恩光衍世)」 편액

우리가 흔히 아는 김만덕의 쌀 기부와 금강산 구경 외에도 이러한 많은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화들을 바탕으로 드러난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중심으로 기념관 기획안을 구상해보겠다. 전시관 공간 구상에서 김만덕의 나눔정신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체험관을 통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나눔정신에 대해 알려주도록 할 것이다.

39) 은광연세(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

40) 이경채(2010), 『세상을 빛낸 위대한 여성 김만덕』, 나무처럼, 124-125쪽

V. 전시 공간의 기획

5장에서는 김만덕이라는 인물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유형화하여 정리하고, 이를 어떻게 전시관의 구성에 반영할 것인지를 연구해본다. 또한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모색해본다.

전시관 구성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전시관 내 한 파트마다 해당 파트와 관련된 내용의 체험관을 둔다. 해당 체험관의 체험을 마치면 사전에 나누어준 티켓에 있는 스티커를 표지판에 붙이도록 한다. 그 날 모인 스티커의 숫자만큼 전시관 측에서 기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나눔정신 고취라는 전시관의 목적을 살린다. 또한 각 체험관에서 체험을 마치면 참 잘했어요 스탬프를 받아 티켓 뒷면에 찍고 모든 체험관을 통과하여 스티커를 다 모으면 ‘나도 나눔활동가’ 배지를 선사하는 포상을 마련하여 어린이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1. <김만덕을 생각하다> 전시관

1) 소녀 김만덕

김만덕은 양인인 아버지 김응열과 어머니 고 씨의 고명딸로 태어났다. 부모님,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던 김만덕은 12세 때, 부모님을 잃고 천애고아가 된 후, 형제들과 뿔뿔이 흩어져 노기생의 양녀로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을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통해 관객들에게 보여주어 소녀 김만덕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만화와 점토인형, 종이인형 등으로 김만덕이 노기생의 양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구성하여,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안내판에 ‘하루아침에 천애고아가 되어 기녀의 양녀로 들어간 김만덕. 이

때까지는 양모의 뒤를 이어, 보통의 기생들의 운명을 따르게 될 줄 알았으나...’ 등의 문구를 넣어, 소녀 김만덕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유발하는 방법도 구상해볼만하다.

(1) 캐릭터 체험관

소녀 김만덕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보여준 후 애니메이션과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김만덕 캐릭터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잘 그린 작품의 경우, 기념품 샵의 물품을 포상으로 주고 해당 체험관 내 벽에 전시도 해두어 다른 관람객들이 구경할 수 있게 한다.

<표 3> 캐릭터 체험관 요약도

전시관	캐릭터 체험관
전시내용	소녀 김만덕을 캐릭터화 하는 체험
기획의도	김만덕의 소녀 시절에 대한 상상력 자극, 김만덕에 대한 친근감 조성

2) 기업인 김만덕

김만덕은 양모의 뒤를 이어 기생이 되었지만 기생으로서의 삶을 이어가지 않고, 스무 살이 되던 해 양인으로 복권시켜줄 것을 읍소한다. 기생으로서의 능력이 뛰어나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언급도 있는 김만덕이 어쩌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며 친척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⁴¹⁾, 어쩌면 김만덕 스스로 기생의 삶보다는 장사꾼의 삶을 원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기적에서 지워질 것을 호소했던 당시의 김만덕의 심경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여,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관람객들이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김만덕이 객주를 하던 시절에 관련한 기록을 소개한다. 우선 심로송이라는 문인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만덕이 기생 노릇을 할 때 품성이 음

41) 이경채(2010), 위의 책, 47쪽

흥하고 인색하여 남자가 돈이 많으면 따랐다가 돈이 떨어지면 떠나되 옷가지마저 빼앗아서 그녀가 지닌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었다고 한다. 그 바지를 늘어놓고 햇볕에 말리는 것을 보고 동료 기생마저 침을 뱉고 욕했다. 그렇게 벌어서 만덕은 제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한다.⁴²⁾ 이런 흉악한 소문의 진상은 사실 김만덕과 경쟁 관계였던 객주들이 퍼뜨린 소문이라는 설이 있다. 한편 김만덕을 높이 평가했고 그녀와 대면을 한 적이 있는 체제공과 정약용 등의 남인 계열의 사대부들과 달리 이러한 기록을 남긴 심로승은 노론에 속한다. 때문에 노론 쪽에서 이런 평가를 남겼을 거라는 설도 있지만⁴³⁾, 정확한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김만덕이 비정하리만치 독하게 돈을 벌던 기생이었을 수도, 혹은 경쟁 객주들이나 노론 쪽에서 일부러 퍼뜨린 소문일 수도 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전재산을 털어 제주도민들을 구원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자선활동에 몰두했던 김만덕의 또다른 이면인 셈이다. 즉, 타인들에게 상처 입히며 독하게 번 돈으로 또 다른 타인들을 구원한 셈이며,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라는 속담에 걸맞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헛소문에 불과하다면, 김만덕은 또한 객주들이나 노론의 평판에 의해 흠집이 난 희생자이자 피해자일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입장에 대해 관람객들에게 알려주고, 어떠한 입장에 동조하는지를 질문한다. 과연 김만덕은 완전무결한 선인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적인 결점도 가지고 있는 자선가였을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1) 생각 쓰기 체험관

김만덕이 체제공과 심로승 두 사람이 남긴 기록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써보는 시간을 갖고, 김만덕이 진실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관람객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42) 홍종화(2009), 『조선최초 여성 CEO 김만덕』, 주류성, 82-83쪽

43) 정창권(2006), 위의 책, 47-48쪽

<표 4> 생각 쓰기 체험관 요약도

전시관	생각 쓰기 체험관
전시내용	김만덕이라는 인물의 행적과 남겨진 기록을 통해 관람객 스스로 인물에 대해 파악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체험
기획의도	김만덕의 상인 시절에 대한 상상력 자극, 김만덕이라는 인물의 여러 면모에 대한 고찰 유도

3) 의녀반수(醫女班首) 김만덕

정조 16년(1792)부터 4년 여간 최악의 흉년이 지속되고 구휼미를 실은 배마저 침몰하면서 제주 거주민 중 굶어죽는 자가 속출한다. 이 시기에 거부가 된 김만덕은 수십 년에 걸쳐 모은 전 재산을 털어 도민들을 구제한다. 제주목사는 이 내용을 장계로 올리고, 정조는 김만덕의 소원을 무엇이든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제의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신분 상승, 상금, 상품과 같은 실질적인 이득을 청원했을 테지만, 김만덕은 임금이 사는 궁궐과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을 보고 싶다는 독특한 소원을 빌었다. 이 소원이 접수되어, 김만덕은 출륙금지령을 떨치고 드디어 임금이 사는 한양에 도착한다. 임금을 뵈기 위해서는 벼슬이 필요했으므로, 의녀반수라는 형식상의 벼슬을 하사받는다.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던 임금이 어떤 소원이건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한양과 금강산 구경을 청한 김만덕. 만약 관람객 자신이 김만덕이었다면,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그리고 김만덕은 왜 그런 소원을 빌었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1) 소원 빌기 체험관

김만덕은 선행에 대한 칭찬으로 임금님께 소원을 빌어도 좋다는 제의를 듣고 금강산 구경을 소원으로 빈다. 관람객 자신이 선행을 베풀어 임금의 칭찬을 들은 김만덕이라고 생각하고, 소원을 빌라는 임금의 말에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소원을 빌었는지 써보는 시간을 갖는다.

<표 5> 소원 빌기 체험관 요약도

전시관	소원 빌기 체험관
전시내용	김만덕과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라면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써보는 체험
기획의도	김만덕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게 만들어 김만덕이 그런 소원을 빌게 된 연유에 대한 상상력 자극

(2) 기아체험관

‘의녀반수 김만덕’ 파트를 통해 김만덕이 선행을 하던 당시에 심각했던 제주의 흉년 상황에 대해 알려준 후, 선조들이 먹었던 구황작물들을 소개하여 배고픔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구황작물들을 이용해서 요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표 6> 기아체험관 요약도

전시관	기아체험관
전시내용	구황작물 소개, 먹어보고 요리도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기획의도	배고픔의 고난에 대한 체험의 전달



<그림 15> 대표적인 구황작물 고구마

(3) 시 짓기 체험관

선조들은 김만덕의 선행을 기린 명시들을 남겼다. 이를 참고하여 관람객이 김만덕을 기리는 시를 쓰는 기회를 부여한다. 「송만덕귀탐라」 등의 김만덕을 기

리며 옛 선현들이 쓴 시를 예시로 제시한다. 잘 쓴 시를 뽑아 기념품 샵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증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표 7> 시 짓기 체험관 요약도

전시관	시 짓기 체험관
전시내용	김만덕의 선행을 기리는 시를 짓게 한다
기획의도	시를 쓰면서 김만덕의 선행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송만덕귀탐라⁴⁴⁾

만덕은 영주의 기녀
 예순 얼굴이 마흔처럼 보이네.
 천금으로 쌀 사다가 백성들 구하고
 배 타고 바다 건너 궁궐을 갔었다네.
 다만 한 번 금강산 구경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산은 동북녘 안개 속에 솟아 있네.
 임금이 허락하고 날쌌 역마를 허락하시니
 화려한 나들이 온 관동을 진동시키네.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니 마음과 눈은 장대하고
 표연히 손을 흔들며 바다 모퉁이로 돌아가네.
 탐라는 예로부터 고, 양, 부 씨가 살던 곳인데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한양을 구경하였네.
 돌아오니 찬사 소리가 따옥새 떠나갈 듯하고
 높은 기풍은 오래 남아 세상을 맑게 하겠지.
 사람으로 태어나 이름을 세움이 이와 같으니
 여회청대(女懷淸臺)⁴⁵⁾가 족히 몇이나 될까.

44) 정창권(2006), 위의 책, 223쪽



<그림 16> 증정상품의 예: 이중섭미술관의 기념품

체험 프로그램들에서 뛰어난 결과물을 내놓은 관람객에게는 텀블러, 엽서, 열쇠고리 등 기념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기념품들을 선물하여, 관람객들의 적극성과 흥미를 유도한다.

4) 인간 김만덕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김만덕은 친자가 없는 대신 양자들에게 사업을 물려주었고, 죽을 때까지 자선활동을 계속 했다. 지금과 같이 미혼이 많았던 것도 아닌 조선시대, 여자가 남편 없이 홀로 살기는 힘들었던 당시에 김만덕이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혼자의 몸으로 이미 많은 돈을 벌어서 남편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해 상상해보게 만든다.

또한 채제공이 정조에게 청을 올려 김만덕을 비변사에서 살게 해준 것, 김만덕과 채제공의 교류, 김만덕이 제주로 돌아갈 적에 채제공을 다시는 못 보게 되었다며 울었다는 기록 등을 통해, 둘 사이에 있었을 법한 관계를 암시한다. 김만덕이 채제공을 흠모했다는 설도 있는데, 이러한 야사에 대해 알려주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알려지지 않은 김만덕의 애정관계에 대해 상상하도록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주요 키워드를 잡아 김만덕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일대기관 관람을 마친 후에 김만덕의 일생에서 어떤 시기 혹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45) 진시황 때 청(淸)이란 과부가 조상의 업을 이어받아 재산을 모으며 정절을 지키자 그녀를 위해 누대를 세웠는데, 이를 여희청대라 한다

흥미가 가는지 투표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김만덕의 일생과 관련된 어떠한 스토리텔링에 관람객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지 확인하고 피드백 하여 전시동선 스토리텔링 구성을 할 수 있다.

(1) 서예 체험관

추사 김정희가 김만덕을 기리며 써준 「은광연세(恩光衍世)」의 판액 복사본을 보면서, 서예를 따라 해본다. 한자쓰기가 서툰 아동이나 학생들은 한글로 따라 써보고 성인들은 한문으로 따라 쓰게 하는 체험을 통하여, 은광연세의 뜻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게 할 수 있다.

<표 8> 서예 체험관 요약도

전시관	서예 체험관
전시내용	추사가 남긴 <은광연세>를 서예로 써보는 체험 프로그램
기획의도	서예라는 드문 체험을 통하여 김만덕의 선행을 기리는 <은광연세>의 뜻을 오래 기억하도록 함

(2) 김만덕 퀴즈 체험관

김만덕의 일생을 키워드별로 다룬 일대기 전시관을 모두 감상한 후, 김만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김만덕과 관련된 퀴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상으로는 사탕과 같은 소소한 것을 증정하고, 모든 문제를 다 맞혔을 시에는 기념품 샵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증정하는 보상을 두어, 관람객의 흥미를 자극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예시]

● 조선 중기 제주도민들이 제주 섬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 정책은?

(답) 출륙금지령

● 정약용이 말한, 김만덕이 지닌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을 뜻하는 말은?

(답) 삼기사희(三奇四稀)

● 추사 김정희가 김만덕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써준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라는 뜻의 편액은?

(답) 은광연세(恩光衍世)

● 김만덕을 위해 정조가 내려준 '의녀 중에 으뜸'이라는 뜻의 명예직은?

(답) 의녀반수(醫女班首)

<표 9> 퀴즈 체험관 요약도

전시관	김만덕 퀴즈 체험관
전시내용	전시동선에서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김만덕 관련 퀴즈 프로그램 운영
기획의도	김만덕 관련 정보 체득

2. <나눔정신을 생각하다> 전시관

1) 현대의 눈으로 본 김만덕

우선 김만덕 도서, 영상, 콘텐츠, 기념행사 등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콘텐츠들이 김만덕이라는 인물을 스토리텔링한 방법을 보여준다. 관람객들에게 김만덕의 개별적인 주제들로 콘텐츠를 구상하고, 그 내용을 스토리텔링 하는 기획서를 써보게 한다. 예시 : <내가 제작하는 김만덕 영상콘텐츠> - 김만덕의 일생의 한 부분(기녀시절, 상인시절, 나눔을 하는 중 노년 시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중 어떤 것을 제작하고 싶은가, 누구를 어떤 배역으

로 캐스팅하고 싶은 가를 고민하여 가상 기획서를 적어보도록 한다. 우수 기획서로 선정될 경우, 기념품 샵에서 경품을 증정하고 로비 전시 홀에 게시도 한다.

(1) 가상기획서 체험관

김만덕과 관련된 콘텐츠들, 스토리텔링의 예시들을 감상한 후, 김만덕이라는 인물을 주제로 콘텐츠를 구상하고 관람객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체험 시간을 갖는다.

<표 10> 가상기획서 체험관 요약도

전시관	가상기획서 체험관
전시내용	김만덕을 주제로 콘텐츠를 구상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체험
기획의도	인물 김만덕에 대한 상상력 유도

2) 나눔정신을 실천한 선현들

김만덕에 못지않은 선행을 베푼 부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하나의 사례로 약 300년 간 이어져온 경주의 최 부잣집에는 육연(六然)이라는 가훈⁴⁶⁾이 있었다.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따랐던 최 부잣집의 마지막 후손 최준은 독립 운동에 자금을 대주었고 광복 후에는 교육 사업에 재산을 기부했다.⁴⁷⁾ 이러한 가훈과 일화 위주로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육연(六然)

- ①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 ② 재산은 만 석 이상 모으지 마라.

46) 천지일보, "경주 최부잣집의 교훈", 2016년 9월 27일, 박춘태 학장, <http://www.newscj.com/>
 47) 이소원(2013),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

- ③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 ④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 ⑤ 사망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 ⑥ 최 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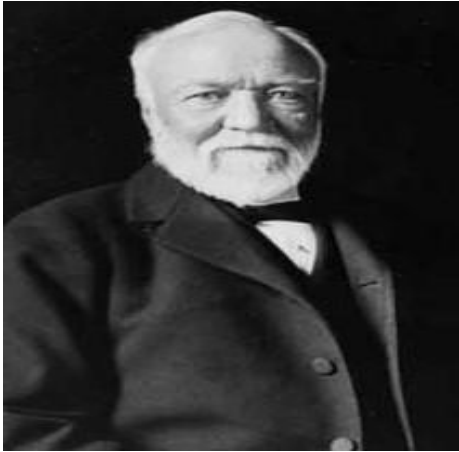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근검절약으로 큰돈을 벌어 전 재산을 기부했으며, 조선총독부가 주는 표창까지 거절한 백선행⁴⁸⁾의 일생 또한 김만덕을 연상케 한다.



<그림 17> 백선행: 일제시대에 전 재산을 기부했던 자선가

재산의 85%를 환원하기로 약속한 워런 버핏, 전 재산 기부를 약속한 애플의 CEO 팀 쿡 등 해외에서도 나눔을 실천한 많은 기부자들이 있다. 그 효시는 아마도 많은 재산을 기부하고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말을 남긴 앤드류 카네기일 것이다. 이런 인물들의 나눔정신과 계기에 대해서 소개하여 관람객들의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낸다.

48)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그림 18> 앤드류 카네기: 많은 재산을 기부했던 미국의 재벌 카네기

한편, 나눔은 거액을 지닌 거부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며, 물질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의 사례 등, 다양한 기부방법에 대하여 소개해준다. 이때 안내판을 사용한 단순설명보다는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첨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테면, <나눔 가족 이야기> 캐릭터화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별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대학생인 형이, 중학생인 나, 초등학생인 동생이 할 수 있는 나눔 같은 식으로 나눔과 기부방법을 소개한다. 관람객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도 할 수 있는 나눔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표 11> 나눔정신을 실천한 선현들 전시관 요약도

전시관 이름	나눔정신을 실천한 선현들
전시내용	기부자들에 대한 소개, 재능기부 등 다양한 기부 방법에 대한 소개
기획의도	나눔정신의 강조, 기부에 대한 정보 제공

(1) 나도 나눔활동가 체험관

자신이 이제껏 했던 나눔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찬 나눔에 대해 적는다. 왜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차다고 느꼈는지 그 이유를 적는 시간을 갖는다. 기억을 떠올리고 적는 시간을 통하여 나눔의 기쁨을 상기시킨다.

<표 12> 나도 나눔활동가 체험관 요약도

전시관	나도 나눔활동가 체험관
전시내용	자신이 했던 가장 보람찬 나눔에 대해 적어보게 한다.
기획의도	나눔을 했을 당시의 기쁨과 보람을 상기시킨다.

3) 전시 내용 요약 공간

김만덕 기념 사업회에서는 학술 세미나 개최, 김만덕 자료총서 발간, 나눔 쌀만 섬 쌓기 개최, 김만덕 국가 표준영정 지정, 칸호아 제주 초등학교, 번푸 만덕중학교⁴⁹⁾ 준공 및 기증 등의 김만덕의 뜻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왔다⁵⁰⁾.

이러한 활동들을 홍보하여, 후손인 우리가 김만덕의 뜻을 기리기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김만덕을 주제로 한 연극, 음악회, 노래, 웹툰 등의 콘텐츠를 소개한다. 시대를 넘어서 재해석된 김만덕의 일화와 시대를 넘어도 빛바래지 않는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알려준다.

김만덕 기념관의 관람을 마친 후, 느낀 소감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는 공간을 만든다.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하여, 자신이 관람한 것들을 다시 떠올리고 그 감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이렇게 소감을 적어냈을 경우, 소정의 상품도 증정케 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본다. 기념품 샵도

49) 김만덕 기념 사업회에서 김만덕 나눔정신 계승의 일환으로 베트남에 칸호아 제주 초교와 번푸 만덕 중학교를 설립, 기증하였다.

50) 현성욱(2011), 「기념사업 추진 성과」, 『김만덕 정신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사)김만덕기념사업회, 33쪽

함께 설치하여 김만덕을 모티브로 만든 기념품들을 판매토록 한다. 그리고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나눔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김만덕 기념관의 테마와도 어울린다.

(1) 나눔 나무 만들기 체험관

자신이 하고 싶은 나눔, 할 수 있는 나눔을 적은 쪽지들로 뒤덮인 나무를 만들게 한다. 쪽지를 적으면서 나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매달 쪽지를 보면서 나눔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만든다.

<표 13> 나눔 나무 만들기 체험관 요약도

전시관	나눔 나무 만들기 체험관
전시내용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나눔, 현재 할 수 있는 나눔에 대하여 적은 쪽지를 나무에 매달게 한다
기획의도	현실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나눔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그림 19> 나눔 나무의 예시: 자신이 하고 싶은 나눔을 적은 쪽지를 매단 나눔 나무

전시관 중앙에 있는 커다란 나눔 나무에 각자가 하고 싶은 나눔, 할 수 있는 나눔에 대하여 적은 쪽지들을 매달게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나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나눔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체험이다.

3. 동선과 스토리텔링의 배치

앞서 살펴본 전시동선들을 한 눈에 보기 쉽도록 각각 세로 동선표, 가로 동선표, 투시도로 제시해보았다.

(1) 세로 동선표

세로 동선표를 통해 키워드별 각 전시동선의 헤드라인, 기획의도, 스토리, 전시내용을 소개한다.

<표 14> 세로 동선표

소녀 김만덕	헤드라인	소녀 김만덕의 기구한 운명
	기획의도	만화, 애니메이션, 점토인형, 종이인형 등의 콘텐츠를 통해 소녀 김만덕이 처하게 된 힘겨운 상황을 보여주고 소녀 김만덕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 조성
	스토리	양친, 형제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던 김만덕은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으로 형제들과 흩어져 기생을 양모로 얻게 된다. 과연 그녀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전시내용	1)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소녀 김만덕의 상황을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로 표현한다. 2) 점토인형, 종이인형 소녀 김만덕의 상황을 점토인형, 종이인형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준다. 3) 캐릭터 체험관 자신만의 김만덕 캐릭터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김만덕을 캐릭터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김만덕에 대한 친근감을 조

		성한다.
기업인 김만덕	헤드라인	기업인 김만덕의 명과 암
	기획의도	김만덕의 호소로 기적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극적인 상황과 김만덕에 대해 선조들이 남긴 상반된 기록을 통해 김만덕이라는 인물에 대한 고찰 유도
	스토리	20세가 된 기생 김만덕, 거둬진 호소로 마침내 기적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상인의 길을 나서다. 그러나 그녀에 대해 남겨진 악평은 과연 악의적인 기록일 뿐일까, 김만덕의 숨겨진 그림자일까.
	전시내용	1) 기적에서 지워진 김만덕 김만덕이 기적에서 지워지고 장사를 시작한 대목과 그러한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제시하여 호기심 자극 2) 김만덕에 대해 부정적인 기록 김만덕에 대해 악평을 내린 심로송의 기록을 인용하여 그 기록의 진실 여부에 대해 관람객 나름의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 3) 생각 쓰기 체험관 김만덕에 대해 남겨진 기록을 바탕으로 김만덕이 진실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관람객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의녀빈수 김만덕	헤드라인	김만덕, 선행의 시작
	기획의도	당시의 제주의 흉년과 김만덕의 선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달로 김만덕의 나눔정신에 대해 알려주고 선행 이후의 행적에 대해 안내
	스토리	제주도민들을 고난으로부터 구해낸 김만덕, 마침내 임금에게 까지 인정받다. 그녀가 임금에게 빈 소원은 무엇이며 그녀의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왜 그런 소원을 빌었을까?

	전시내용	<p>1) 의녀반수 김만덕의 행적 안내 당시 제주의 흉년 상황과 김만덕의 선행에 대해 안내하여 그녀의 나눔정신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또한 임금께 빈 소원으로 한양과 금강산 나들이를 하며 당대의 선비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알려, 김만덕이 선조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었음을 알려준다.</p> <p>2) 소원 빌기 체험관 자신이 임금에게 칭찬받은 김만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빌고 싶은 소원을 생각해본다. 그를 통해 금강산 구경을 소원으로 빌었던 당시 김만덕에게 감정이입을 해본다.</p> <p>3) 기아 체험관 제주의 흉년 상황 당시 힘겨웠던 제주도민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만든다. 그를 통해 김만덕의 나눔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생각하게 한다.</p> <p>4) 시 짓기 체험관 김만덕은 당대의 선비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고, 그를 직접 글로 써 남긴 이들도 많다. 관람객 자신도 김만덕의 선행과 그녀의 인생에 대해 시를 짓는 체험을 통해 그녀의 선행을 기리도록 한다.</p>
인간 김만덕	헤드라인	알려지지 않은 인간 김만덕의 모습을 알아보자
	기획의도	김만덕에 대한 궁금증, 야사 등을 공개하여 기업인이나 자선가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김만덕에 대한 호기심 자극
	스토리	김만덕은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김만덕과 가까웠던 체제공과는 어떤 관계였을까? 인간 김만덕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전시내용	<p>1) 김만덕의 일화들 김만덕을 둘러싼 일화들과 야사들을 안내하여 인간 김만덕에</p>

		<p>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자극한다. 김만덕의 삶에 대해 관람객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p> <p>2) 서예 체험관 추사가 김만덕을 기리며 남긴 글자 [은광연세]를 따라 쓰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은광연세의 뜻을 마음에 새긴다.</p> <p>3) 김만덕 퀴즈 체험관 김만덕의 일생을 다룬 전시관을 보고 난 후 습득한 정보들을 토대로 김만덕 관련 퀴즈를 맞히는 체험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얼마나 제대로 얻었는지 실험해볼 수 있게 한다.</p>
<p>현대의 눈으로 본 김만덕</p>	<p>헤드라인</p>	<p>현대의 눈으로 바라본 김만덕</p>
	<p>기획의도</p>	<p>후세 사람들이 바라본 김만덕. 현대의 눈으로 바라본 거부 김만덕, 자선가 김만덕, 여인 김만덕, 인간 김만덕에 대해 살펴보자. 또한 현대에 와서 김만덕 인물 스토리텔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람객 자신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해본다.</p>
	<p>스토리</p>	<p>다른 사람들은 김만덕을 어떻게 다루고 스토리텔링하고 있을까? 김만덕을 다룬 콘텐츠들과 스토리텔링을 살펴보고 자기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해보자.</p>
	<p>전시내용</p>	<p>1) 오늘날에 비추어 본 인물 김만덕 김만덕과 관련된 도서, 영상, 콘텐츠 등을 소개하면서 각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방법을 제시한다.</p> <p>2) 가상기획서 체험관 김만덕이라는 인물을 주제로 콘텐츠를 구상하고 관람객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체험 시간을 갖는다.</p>
<p>나눔 정신을</p>	<p>헤드라인</p>	<p>김만덕을 닮은 사람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부</p>

실천한 선현들	기획의도	김만덕 뿐 아니라 나눔을 베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주, 나눔정신 등에 대해 강조한다. 재능기부 등, 여러 기부 방법의 소개로 나눔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임을 설파한다.
	스토리	많은 자선가들이 나눔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눔을 시작했을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에는 뭐가 있을까?
	전시내용	1) 나눔정신을 실천한 선현들 나눔을 베푼 세계의 많은 의인들과 그들이 나눔을 하게 된 계기 등을 자세히 소개, <나눔 가족 이야기>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연령별로 할 수 있는 나눔과 재능 기부 등에 대한 소개를 한다. 2) 나도 나눔활동가 체험관 자신이 이제껏 했던 나눔들 중에서 가장 보람찬 나눔과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을 통해 나눔을 했던 당시의 기쁨과 보람을 떠올리게 한다.
홍보관	헤드라인	현대에도 이어지는 김만덕 나눔정신
	기획의도	김만덕의 유지를 받은 사업과 각종 활동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음을 홍보
	스토리	김만덕을 본받아 나눔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동선 연결 방법	전시내용	1) 김만덕 기념 사업회에서 행하는 나눔 활동 홍보 2) 김만덕을 주제로 한 문화 활동, 콘텐츠 홍보 3) 김만덕 기념관을 둘러본 자신의 소감을 정리하는 공간 4) 나눔 나무 만들기 체험관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나눔, 현재 할 수 있는 나눔에 대하여 생각하고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동선 연결 방법	1) 김만덕의 생애를 주기별, 키워드별로 알려준다. 2) 각 전시관을 지날 때마다 체험 프로그램에 제시하여 흥미와 적극적인 관람 자세를 유도한다. 3) 나눔정신을 지닌 사람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에 대하여

	<p>알려준다.</p> <p>4) 체험 프로그램, 김만덕에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접하게 하여 김만덕이라는 인물과 그녀의 나눔정신에 대해 되새기도록 만든다.</p>
--	---

(2) 가로 동선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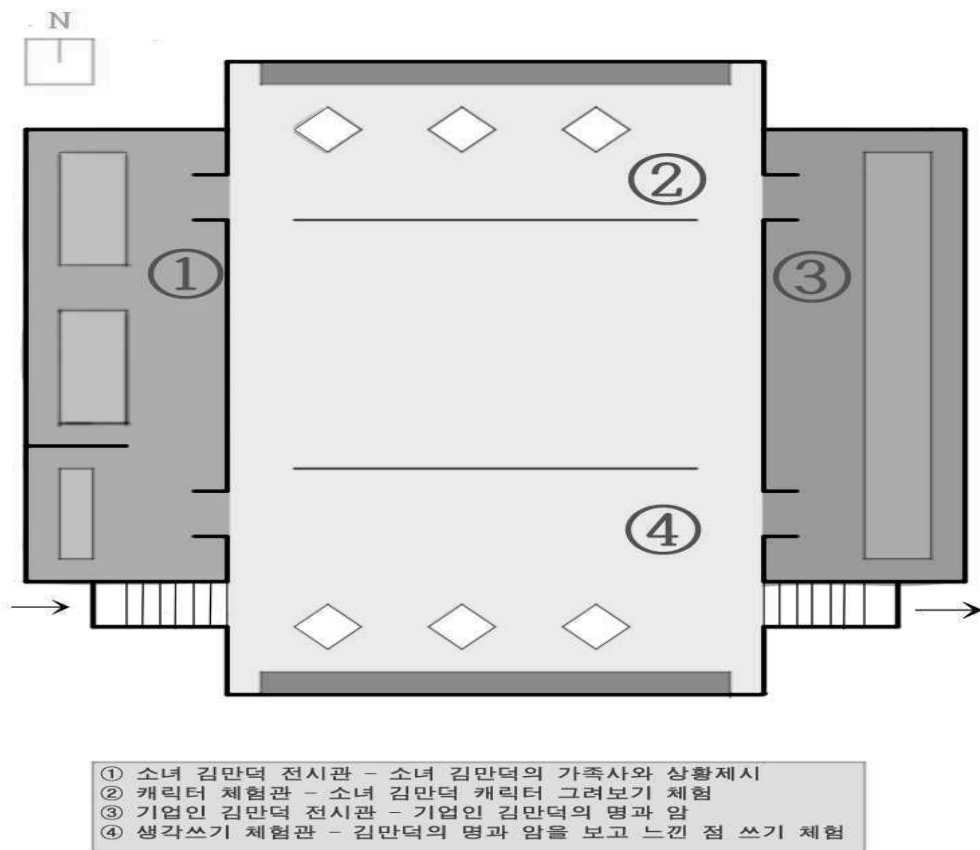
가로 동선표를 통해 키워드별 각 전시동선을 살펴보고 기념관의 전시동선이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전시관의 전시내용과 그 내용을 통해 의도하는 바를 표를 통해서 알려준다.

<표 15> 세로 동선표

소녀 김만덕 전시관	기업인 김만덕 전시관	의녀반수 김만덕 전시관	인간 김만덕 전시관	현대속의 김만덕 전시관	나눔정신을 실천한 선현들 전시관	홍보관
소녀 김만덕이 기생이 될 수 밖에 없던 당시 상황을 제시 -김만덕의 상황에 감정이입 유도	김만덕에 관한 상반된 기록을 제시하여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짐 -김만덕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호기심 자극	김만덕이 자선하게 된 배경과 그 후의 행적을 안내 -김만덕의 나눔정신과 당대의 높은 평가에 대해 안내	김만덕에 관한 일화와 야사를 소개 -인간 김만덕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유도, 상상력 자극	김만덕을 다룬 문헌츠와 스토리텔링 소개 -김만덕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감상 후 직접 스토리텔링해보는 체험	세계의 자선가들, 나눔의 방법을 소개 -〈나눔 가족 이야기〉 스토리텔링과 체험 활동을 통해 나눔 정신 고취	김만덕의 유지를 이은 나눔 활동과 홍보 -많은 나눔 활동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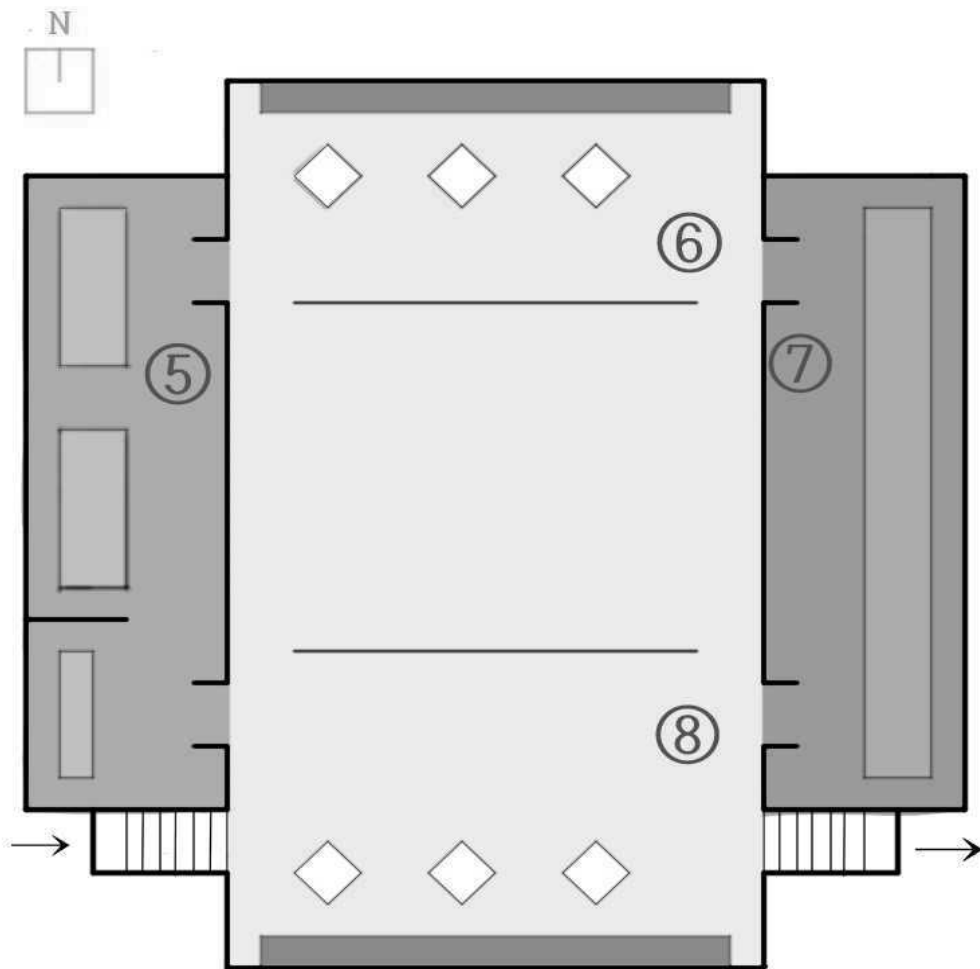
(3) 투시도

각 층별 투시도를 통하여 기념관의 전시동선을 바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 1층의 전시는 소녀 김만덕 전시관으로부터 시작된다. 김만덕의 불행한 가족사와 기녀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게 하여, 소녀 김만덕에 대한 동정심과 감정이입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소녀 김만덕의 캐릭터를 직접 그려보며 김만덕에 대한 친근감을 고조시키고 기업인 김만덕의 전시동선을 통하여 김만덕에 대해 전해지는 다양한 면모를 설명,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생각쓰기 체험관을 통해서 자신은 김만덕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은지 스스로 고찰해본다.



<그림 20> 전시관 1층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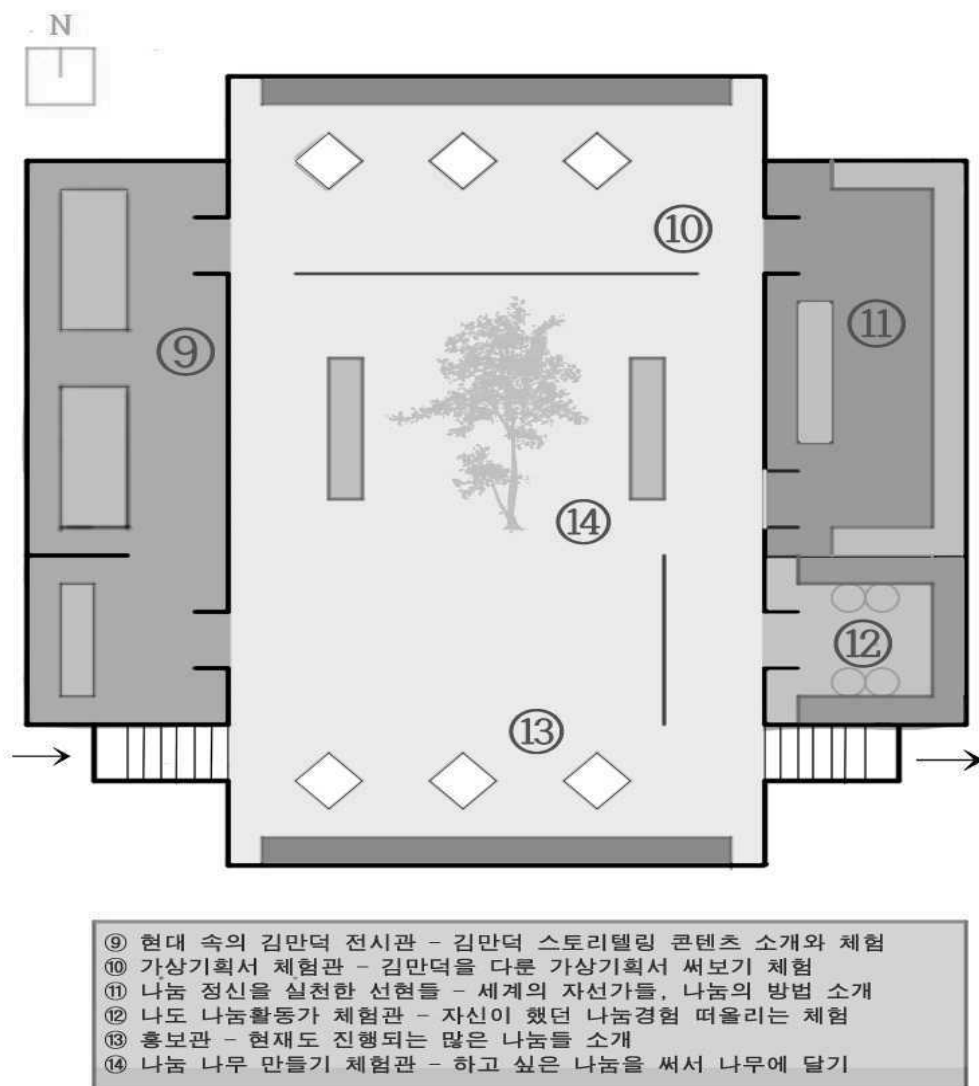
2층에서는 김만덕의 나눔정신과 당대의 훌륭한 평판, 즉 의녀반수 김만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김만덕이 되어 소원을 비는 체험, 당시의 극심한 기아를 살펴보는 체험, 김만덕을 기리는 시를 짓는 체험을 통해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상기시킨다.



- ⑤ 의녀반수 김만덕 전시관 - 김만덕의 나눔정신과 당대의 평판
- ⑥ 소원빌기/기아/시짓기 체험관 - 김만덕 대신 소원 빌기, 당시의 기아, 김만덕 기리는 시짓기
- ⑦ 인간 김만덕 전시관 - 김만덕에 관한 일화와 야사 소개
- ⑧ 서예/퀴즈 체험관 - 서예 체험, 김만덕 관련 퀴즈체험

<그림 21> 전시관 2층 투시도

3층에서는 김만덕 콘텐츠와 나눔정신에 대해 제시한다. 현대 속의 김만덕 전시를 통해 김만덕을 다룬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소개하고 스스로 작성해 보게 한다. 김만덕 외에도 훌륭한 나눔정신을 보여준 많은 선현들을 제시하여 나눔정신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나눔경험을 상기시키는 체험, 하고 싶은 나눔을 공유하는 나눔 나무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서 나눔정신을 되새기게 한다.



<그림 22> 전시관 3층 투시도

VI. 결론

제주도 김만덕 기념관을 중심으로 인물 기념관의 전시 스토리텔링에 대해 살펴보았다. 많은 관광시설과 테마파크들이 들어서고 있는 제주에서 인물기념관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채 주변부를 맴도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육지와 단절된 채 본토에 예속된 작은 섬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까지 이름이 알려진 제주의 인물이 적다는 것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에는 가장 널리 이름이 알려진 인물,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우르며 귀감이 될 수 있는 김만덕이라는 인물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대표적인 위인이자, 거상의 이미지로 각인된 김만덕을 나눔정신을 나눈 자선가로서의 면모에 주목하여 김만덕의 인물기념관 구상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김만덕을 기리기 위한 종전의 사라봉 김만덕 기념관이 있었지만, 장소가 극히 협소하고 전시물이 적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연유로 제주도에서는 김만덕의 나눔정신과 선행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5년 제주시 건입동에 김만덕 기념관을 설립하였다. 사라봉 김만덕 기념관의 많은 단점들이 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들어선 김만덕 기념관에도 미흡한 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라봉 김만덕 기념관과 건입동 김만덕 기념관에서 발견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김만덕 기념관 기획안을 구상하기 위하여 ‘전시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하나는 전시관 동선 구성에 전시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여, 관람객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이끌어내고 보다 많은 감흥과 여운을 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김만덕 기념관의 관람을 통한 나눔정신 고취와 함양이다.

인물 기념관의 의의는 단순히 인물의 행적과 업적을 알리는 것 뿐 아니라, 인물의 정신과 본받을 만 한 점에 대하여 알려주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획안에서는 김만덕의 나눔정신 고취와 함양을 주요 테마로 삼아, 김만덕이 보여준 나눔정신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김만덕의 자선활동과 나눔정신에

대해 알려주는 데 있어,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보다 친근하고 흥미롭게 다가가기 위한 기획안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김만덕의 일생을 주기별, 키워드별로 선정하여 전시 동선을 구상하였다. 주기별, 키워드별로 김만덕의 일생에 대하여 다루고 김만덕과 관련한 다양한 일화들을 재구성하여 김만덕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 전시 동선이 끝날 때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전시 내용을 다시 되새기고 관람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도했다.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념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체험 프로그램에서 내놓은 결과물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우수한 결과물을 내놓은 관람객에게는 기념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김만덕을 주제로 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식도 생각해보았다. 또한 전시 동선을 자연스럽게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시 동선을 위해서 하나의 구역별 관람을 끝냈을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서 그 스티커의 숫자만큼 기념관에서 기부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제안해 보았다. 그 밖에도 나눔을 행한 사람들과 나눔을 행하게 된 동기, 나눔 가족이라는 캐릭터 등을 통해 나눔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나눔정신이라는 개념을 좀 더 친근하게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문화자원이나 인물을 다룬 기념관을 기획하고자 할 때, 이처럼 개별적인 기념관의 설립 목적에 일치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입혀서 핵심적인 가치 전달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하여 관람객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서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관람 태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김만덕 기념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재방문율을 높이고, 문화산업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인물 기념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다룬 논문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가 인물기념관의 전시 스토리텔링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단행본》

- 김영미 (2010), 『김만덕 1, 2』, 산수야.
- 김은식 (2006), 『장기려 우리 곁에 살다 간 성자』, 봄 나무.
- 김인숙 (2006), 『제주의 빛 김만덕』, 푸른숲.
- 신병주 (2011), 『조선평전』, 글항아리.
- 윤수민 (2009), 『조선의 여성상인 김만덕』, 창해.
- 이경채 (2010), 『세상을 빛낸 위대한 여성 김만덕』, 나무처럼.
- 이경화 (2005), 『구원의 여인 김만덕』, 깊은 강.
- 이덕일 (2009), 『이덕일의 세상을 바꾼 여인들』, 옥당.
- 이상희 (2005), 『가난한 이웃을 어루만진 의사 장기려』, 웅진씽크빅.
- 이수광 (2010), 『시대의 빛이 된 여인 김만덕』, 워크비전.
- 이이화 (2008), 『한국사의 아웃사이더』, 김영사.
- 정창권 (2006),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 한교경 (2013),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분석』, 서울: 북코리아.
- 현성욱 (2011), 「기념사업 추진 성과」, 『김만덕 정신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사)김만덕기념사업회.
- 홍종화 (2009), 『조선최초 여성 CEO 김만덕』, 주류성.
- (사)김만덕기념사업회(2013), 『의녀반수 김만덕 생애와 현대적 조명』

《학위논문》

- 장민우 (2014), 「이중섭 기념관 : 이중섭기념관 설계계획안」,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현주 (2009), 「시민성 함양을 위한 고등학교 청소년의 나눔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경 (2013),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나눔·배려 교육 지도 방법의 구안」,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나희 (2007), 「어린이를 위한 스토리텔링 전시기법에 관한 연구 : 생활사 주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연희 (2012),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박물관 전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성 (2014),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나눔교육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영 (2010),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전시공간 계획연구 : 체험적 어린이 전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신영 (2014), 「초등학생 공동체 의식과 친사회적 행동증진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희명 (2011), 「기념관의 역사와 교육기능 연구 : 백범김구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물관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안예진 (2009), 「테마박물관 소장품전시의 스토리텔링 적용에 관한 연구 : 아프리카박물관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은 (2006),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준성 (2013), 「세종대왕 기념관의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수정 (2011),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대학기록관의 전시 개발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서연 (2012), 「초등학생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 국제 비교」,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하경숙 (2014), 「스토리텔링을 통한 여성 인물의 가치와 의미-윤초 김부용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溫知論叢』 Vol.41 No-[2014].

2. 웹사이트

김경애(2009), 시대와 불화하지 않으면서 시대를 뛰어넘은 여성 기업인 김만덕, <http://navercast.naver.com/>

김만덕기념관, <http://www.mandukmuseum.or.kr/>

김영갑갤러리 두모약, <http://www.dumoak.co.kr/>

제주해녀박물관, <http://www.haenyeo.go.kr/contents/index.php?mid=0601>

왓중미술관, <http://walartmuseum.or.kr/>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http://kimtschang-yeul.jeju.go.kr/>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http://www.icdonggu.go.kr/>

이소원(2013),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송민재(2016), 피란수도 부산의 봄을 가슴에 담다, <http://reporter.korea.kr/index.jsp>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www.grandculture.net

3. 신문기사

조선일보, 「거봉의료복합타운 조성… 거제지역 건강 파수꾼 역할 최선」, 황여정 기자, 2016년 11월 14일.

국민일보, 「부산에 장기려박사 기리는 ‘장기려路’ 생겨」, 윤봉학 기자, 2015년 3월 19일.

천지일보, 「경주 최부잣집의 교훈」, 박춘태 학장, 2016년 9월 27일,

<http://www.newscj.com/>

경인일보, 「이웃사랑 실천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성호 기자, 2010년 3월 9일, <http://www.kyeongin.com>

4. 그림 출처

<그림 1> 장기려 박사의 행적들로 이뤄진 전시동선

<http://blog.naver.com/jongdo2n/220514248713>

<그림 2> 장기려 박사의 의사가운과 진찰기

<http://blog.naver.com/kjyoun24/220782821421>

<그림 3> 장기려 박사를 다룬 신문기사부조 전시: 무소유의 삶, 인술을 베푼 삶에 대한 조명 <http://blog.naver.com/jongdo2n/220514248713>

<그림 13> 「만덕전」: 채제공이 김만덕의 일생을 정리한 책

한국민족문대백과, <http://terms.naver.com/list.nhn?cid=44621&categoryId=44621>

<그림 14> 「은광연세(恩光衍世)」 편역

제주신보, "기록물로 들여다보는 나눔과 베품의 삶", 2016년 6월 1일, 백나용기자

<그림 20> 나눔 나무의 예시: 자신이 하고 싶은 나눔을 적은 쪽지를 매단 나눔 나무 http://blog.naver.com/pegasus_no6/30175708205